

발행인: 이예식
편집인: 홍문표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0년 10월 14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홍문표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94
e-mail: skkhmp@skku.edu

1. 월례 논문발표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모임의 FISA 특강은 서울대 이성은 선생님께서 “신경생리학적 기법을 활용한 언어 인지 처리 연구”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이 밖에 기획논문은 서울대의 남승호 선생님께서 “한국어 상 조동사 ‘어 있’과 ‘고 있’의 몇 가지 제약: 사건 구조적 설명”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두 편의 일반논문은 경남대의 김태호 선생님이 “Postposing Constructions in Korean: An Empirical Study”라는 제목으로, 대전대의 차종열 선생님이 “The Many Faces of *tha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월례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정 연구이사(hanjung@skku.edu)나 홍문표 총무이사(skkhmp@skku.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12월말에 발행될 논문집(14권 2호)에 실을 원고의 접수를 진행중이오니 11월5일까지 논문을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논문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꼭 논문 요약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외 논문의 스타일은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617-716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산 69-1 동서대학교 영어학과 정찬 교수 (cchung@dongseo.ac.kr)
-------	---

-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심사료: 30,000원
논문 게재료: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00,000원)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00,000원)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50,000원)
- ▶ 논문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원고 제출에 관해 의논하시려면 편집위원장인

정찬 교수님(cchung@dongseo.ac.kr)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3. 연합학술대회 안내

- ▶ 현대문법학회와 언어정보학회에서는 11월 13일(토) “언어정보와 형식화의 다양함”이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에서 합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0년 11월 13일(토), 09:30 - 18:00
2. 장소 : 영남대학교
3. 주최 : 언어정보학회, 현대문법학회

4.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2010년도 연회비를 징수하고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 ▶ 연회비는 월례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다음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64-025835 (예금주: 김정임)

- ▶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홍문표 총무이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kkhmp@skku.edu)

5. 2010년 2학기 월례발표회 일정

한국언어정보학회 2010학년도 2학기 월례회 일정표

장소: 대우재단 8층 1실 시간: 9:30 - 13:00

날짜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9/18 (토)	09:30 10:30	기획	임동식 (USC)	Questions, Characters and Evidentiality: A Case Study from Korean	최인철 (경북대)	
	Coffee Break (15분)					
	10:45 11:45	*FISA 특강	전문기 (건국대)	Automatic Analyses of the Cohesion in Text and Discourse with Coh-Metrix: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15분)					
	12:00 13:00	기획	고길수 (서울대)	의문문 유형 분류에 기반한 프랑스어 의문사 <i>que</i> (무엇)의 사용 분석		
10/23 (토)	09:30 10:20	기획	남승호 (서울대)	한국어 상 조동사 '어 있'과 '고 있'의 몇 가지 제약: 사건 구조적 설명	조세연 (강원대)	
	Coffee Break (20분)					
	10:40 11:40	FISA 특강	이성은 (서울대)	신경생리학적 기법을 활용한 언어 인지 처리 연구: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20분)					
	12:00 12:30	일반	김태호 (경남대)	Postposing Constructions in Korean: An Empirical Study		
	12:30 13:00	일반	차종열 (대전대)	The Many Faces of <i>that</i>		
12/11 (토)	09:30 10:30	기획	이영주 (서울여대)	Passive Aspects in Korean	이은석 (대구대)	
	Coffee Break (15분)					
	10:45 11:45	FISA 특강	최승권 (ETRI)	패턴 기반 자동번역: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15분)					
	12:00 13:00	기획	김용범 (광운대)	영어 총칭문의 해석		

*FISA 특강시리즈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한국언어정보학회 2010년 9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기획 논문 >

한국어 상 조동사 ‘어 있’과 ‘고 있’의 몇 가지 제약: 사건 구조적 설명

남 승호 (서울대)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두 구문의 분포에 관한 몇 가지 (통사적, 의미적) 제약이 모두 사건구조에 대한 제약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 ‘어 있’과 ‘고 있’의 상적 기능이 “지속상”으로 수렴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어 있’의 선행 술어에 대한 기존의 “자동사 제약”(근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 vs. *문을 활짝 열어 있다.)은 실상은 통사적 제약이 아니라 사건구조의 논항결속 제약으로 더 잘 설명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어 있’ 구문이 일부 타동사와 결합하는 사실(소나기를 피해 있다. 관악산을 향해 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일부 형용사와 결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뿌루통해 있다. 침통해 있다.)

(2) 전형적인 달성동사는 ‘고 있’ 구문을 취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발견하고 있다. *달고 있다.), 매우 다양한 달성동사 부류가 ‘고 있’ 구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인다. 특히 기존의 주장과 달리 달성동사 가운데 자동사도 ‘고 있’을 취하면서 ‘결과지속’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이고(광복회에 가담하고 있다. 철봉에 매달리고 있다.), ‘V-고 있’ 구문의 ‘결과지속’ 해석 문제는 자타동사를 통합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또한 ‘고 있’의 중의성(소위 “진행”과 “결과지속” 해석) 문제는 기존의 주장(통사론적 중의성, 의미론적 중의성)과 달리, 두 해석에 대응하는 통사적 차이를 받아들이면서도 두 의미는 화용론적으로 중의적임을 밝힌다. ‘고 있’의 ‘결과지속’ 해석은 ‘고’와 ‘있’의 어휘 의미 합성이 가져오는 화용론적 (계기성/인과성) 함축에서 발생한다.

(4) 이와 함께, ‘어 있’과 ‘고 있’의 분포적 상보성-(i) 결과지속의 ‘어 있’과 ‘고 있’, (ii) 결과지속의 ‘어 있’과 진행의 ‘고 있’-을 살펴보고, 15-18세기에 일어난 ‘어 있’과 ‘고 있’ 교체 변화가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함을 보일 것이다.

<FISA 특강>

신경생리학적 기법을 활용한 언어 인지 처리 연구: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이 성은 (서울대)

최근에 이루어진 뇌영상술의 발전은 뇌의 인지 처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뇌영상술이 인지과학에 도입되기 이전에는 인지 처리 연구에서 ‘반응시간 측정’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만 활용 가능했기 때문에 뇌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처리 과정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뇌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EEG, MEG, fMRI, PET 등의 비침습적(non-invasive) 뇌영상술의 활용은 뇌의 인지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러한 뇌영상술 중 뇌파(EEG)는 다양한 인지 처리 연구에 이용되어 왔다. 특히 뇌파 측정은 인지 처리 반응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시간 해상도의 이점을 통하여, 뇌파 측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언어 인지 처리 과정 연구에 매우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다른 뇌영상술에 비해 실험 수행 시 피험자에게 주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영어나 유아처럼 실험 수행이 용이하지 않은 실험집단도 무리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갓 태어난 영아나 아직 말을 못하는 1 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뇌파를 활용한 언어 인지 처리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본 FISA 특강은 이러한 뇌파를 활용한 언어 인지 처리 연구를 주제로 삼고 있다. 본 특강에서는 우선 뇌파의 개념과 뇌파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전위(ERP)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또한 음성·음운 정보처리, 의미 정보처리, 통사 정보처리 등 다양한 언어 인지 처리 과정에서 뇌파를 활용하여 진행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와 바탕으로 뇌파연구를 이용한 언어 인지 처리 연구의 활용 가능성 및 한계성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진행될 연구의 방향성을 조망하게 될 것이다.

<일반 논문>

Postposing Constructions in Korean: An Empirical Study

김 태호 (경남대)

This study investigates postposing constructions in Korean with colloquial data, focusing on what causes an argument, i.e. subject or object, to be placed post-predicatively. In this study, the author argues that the 'more accessible/urgent information first' principl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postposing of less accessible/urgent information into a post-predicative position. More specifically, the preceding element is more accessible in the speaker's consciousness due to its urgency/relevance, and thus uttered first, overriding the 'given-before-new' principle and the predicate-final constraint. Also, certain types of verbs, e.g. presentational or existential verbs, also trigger postposing, although they were considered to be weaker triggers than the 'urgency/relevance of information' factor. This study also addresses the fact that the pragmatic functions of post-predicative arguments include specification of a referent, emphasis, and clarification, and that a particle attached to the given post-predicative argument functions to indicate *topic/contrast, information focus, etc.*